

##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연구(II)

— 사물 접미사에 대하여 —

송 상 조\*

### 머 리 말

방언을 방언답게 하는 언어 현상들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형태론의 범주인 파생어(derivational word)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파생어는 파생 접미사(suffix)에 의해 파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준어 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여러 각도에서 논의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sup>1)</sup>, 증세어의 파생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sup>2)</sup> 제주도 방언(이하 방언)의 파생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sup>3)</sup>

#### \*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1)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 「인천교대 논문집4」의 일련의 논문들.  
고영근(1974);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평문사와 주2~7참조.  
하치근(1987); 국어파생접미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허 용(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제6집 서울대문리대.  
허 용(1979); 우리 옛말본 - 형태론 - 샘문화사.
- 3) 이승명(1956);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김홍식(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어고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  
(1985);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I) 「논문집」 제20집 제주대학교  
(1986);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II) 「논문집」 제22집 제주대학교.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어명연구 「논문집」 23집 제주대학교.

여기에서는 공시적(synchronistic)으로 접미사 전반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고, 작성된 목록을 바탕으로하여 부차적으로 몇가지 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표준어에도 접미사 목록 작성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김계곤님(1969) 고영근님(1974), 하치근님(1987)의 작성법을 원용하여 방언의 접미사를 작성하려 한다.

그리고, 접미사의 확립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지적이 되어 왔지만,<sup>4)</sup>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려 한다.

특히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작성되는 접미사 목록은 공시적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특수성을 지닌, 방언적(?)인 것<sup>5)</sup>을 가려내도록 했고, 토박이(native speaker)의 언어의식을 중시하려 하였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살펴 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방언이기에 통시적(diachronistic)인 방법이 원용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방언의 특성을 살리려 할 때에만 적용하려 하였다.<sup>6)</sup>

여기에서는 사물 접미사만 다룬다.

#### 가. 뿌리만으로도 사물의 명칭으로 쓰이는 접미사

##### 1) 통어적으로 [+대치성]<sup>7)</sup>의 파생어

##### (1)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나는 접미사<sup>8)</sup>

① - 깨미 : 메주-

② - 갱이/갱이 : 꽃-(끄트리) 가지-(바리 뚜껍)

4) 최규일(1989; 81)에서는 Nida(1949: 99~100) 안병희(1969, 1978), 허용(1966), 고영근(1967), (1972), 이은정(1981), 하치근(1978)등의 확립기준을 들고있다.

5) 개신파의 영향을 덜 받고 방언적인 것으로 의식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준은 물론 주관적인 것이 되기 쉽다.

6) 송철의(1983; 47~48)파생어 형성에 대한 연구는 결코 공시적 연구로만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없고, 통시적 변화들에 대한 이해없이는 파생어 형성을 제대로 기술할 수 없다고 했고, 하치근(1985; 220), 공시적인 방법과 통시적인 방법을 섞어 이용하면 일관된 기준설정이 어렵고, 기술상 혼란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7) 하치근(1987: 24~28)에서 기능별 유형에서 [+대치성]1이란 뿌리가 구성요소가 된 월 안에서 뿌리 대신 파생어를 대치했을 때 월의 짜임새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의 [어휘성], [문법성]도 하치근에 따른다.

8) 뿌리와 접미사가 통합될 때 변동이 일어나 [매주깨미], [꽃또리]따위로 발음되는 것을 말함.

- ③ - 고지 : 못-(못)
- ④ - 글래기 : 코-(올가미) 노-(새끼줄)
- ⑤ - 도리 : 굽-(밑바닥)
- ⑥ - 둥이 : 굽-(밑바닥), 몸-
- ⑦ - 다리 : 포-(보자기)
- ⑧ - 보름 : 백-(벽) 축-(벽)
- ⑨ - 살 : 정-(출입을 통제하는 긴 나무)
- ⑩ - 상귀 : 섭-(앞·앞사귀)
- ⑪ - 쟁어 : 입-/앞- (지켓문)
- ⑫ - 생기 : 입-/앞- (앞·앞사귀)
- ⑬ - 재기 : 콧-(눈썹)
- ⑭ - 자 : 공-(공짜)

위에 올린 14개의 파생어에서 뿌리를 보면, 형태는 ‘매주-개미’를 빼고는 모두 하나의 소리마디로 이뤄져 있다.

뿌리에 받침이 없는 것은 ‘매주-, 가지-, 코-, 노-, 포-, 인데 접미사와 통합이 될 때는 ‘사이스’이 덧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14개의 뿌리들은 모두 닿소리 받침이 있는 셈이고, 접미사 첫소리에 닿소리가 있으므로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뿌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휘적인 뜻을 나타낸다.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수식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인 느낌만을<sup>9)</sup> 뿌리에 더한다고도 보기도 하지만 사물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어론적으로 대치성을 살펴 보면 어느 자리에서나, 접미사가 통합된 것과, 자유롭게 비제한적으로 대치되기때문 [-어휘성]만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는 사물접미사이기 때문에 높임·낮춤따위는 나타나지 않고, 크고 작음 정도나 나타날 수 있는데 위의 접미사들은 그런 의식마저도 없이 습관적(conventional)으로 쓰여진다. 문법적 의미(grammatical meanig)나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에 차이가

9) 홍사만(1985; 206) 이러한 것들은 ‘상황적 의미의 가의’라고 하기도 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씨뿌리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어 다시 이름씨를 파생하므로 [-문법성]이 있을 뿐이고, 뿌리와 접미사의 관계는 제한적인 관계에 놓여 뿌리의 뜻을 구체화시키거나, 소리 마디를 더하여 들을이(hearer)에게 선명하게 인식시키거나, 사물의 비칭 정도로 나타난다. 파생력의 정도는 비교적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 쓰인 접미사들이 모두 순수한 것이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메주+개미, 못+고지 정+살’ ‘백+보름’ 따위에 쓰인 접미사들은 자립형태소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예는 그리 발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시적으로 볼 때 ‘살(矢)’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전<sup>10)</sup>에도 ‘살’을 이름씨로 처리하여 있다. 방언에서도 ‘창살 문살’ 따위가 쓰이나, ‘정살’의 경우에는 ‘정’(출입을 통제하는 막이)로 보아져 -살을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말할이(native speaker)의 의식을 중시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며, 접사 자체가, 통시적으로 보아서는 자립형태소이던 것이 자립성을 잃었을 때 접사가 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접사도 또한 실사로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그중, ‘-꾸러기’같은 것은 실사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sup>11)</sup>

‘못+고지’에서 ‘-고지’도 위와 같이 자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표준어는 ‘꼬챙이’에 대응이 되나, 형태가 다른 점이 있고, 방언에서도 ‘적+고지’가 있어 (적을 꿰는 꼬챙이) 자립성이 인정이 되지만 ‘못+고지’에서는 못의 뾰족한 부분을 가리키지 않고 ‘못’ 자체를 가리키므로 접미사로 처리하여 왔다.

‘백+보름’에서도 형성은 ‘백을 부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뜻으로 쓰이지 않고 ‘백’으로만 쓰이므로 접미사로 보았다.

이상의 세 접미사에서 자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은 ‘-살’이고, 그 다음 ‘-고지’이다. 그런데, 사용이 회소성이라든지 의존성을 들어 접미사로 처리하여 둔다. 그래서 이와같은 접미사로 이뤄진 파생어를 준 파생어<sup>12)</sup>로 처리한다.

10) 새한글 사전(1986), 한글학회

11) 고영근(1974; 75~76)에서는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의 동요현상의 예들을 들고있다.

하치근(1987. 11)에서는 [-질]은 의존형식의 접사이긴 하되 이 접사가 가진 어휘성은 실사 수준에 있으므로 의미상 준 합성어를 이룬다고 했다.

12) 준 합성어라 용어는 이미 쓰이고 있지만 파생어의 쪽에서 보면 준파생어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썼다.

(2) 변이음만 생기는 접미사<sup>13)</sup>

- ① - 게 : 통- (통계)
- ② - 기 : 조개- 가매-(가마)
- ③ - 데기 : 붓-
- ④ - 덕 : 영
- ⑤ - 도리 : 태-
- ⑥ - 머리 : 통-
- ⑦ - 매기 : 모(隅)-
- ⑧ - 세 : 기맹-
- ⑨ - 생이 : 곱-
- ⑩ - 습세 / -십세 : 푸(풀)-
- ⑪ - 에-텡-(등지)-
- ⑫ - 이 : 막대○(막대)-
- ⑬ - 지 : 씹-
- ⑭ - 장 : 영-
- ⑮ - 앵이-주시(주시-)

위에 올린 파생어들도 뿌리의 소리마디는 ②조개-, ⑫막대-, ⑮주시-,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소리마디에 접미사가 통합되어 있다. 앞의 (1)의 접미사와 다른 점은 형태음소론적 차이일 뿐으로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서 접미사의 첫소리가 올림소리가 된다. 그 나머지의 여러 현상은 (1)과 같다.

그런데 ⑬의 ‘씹- / 씹- 씹-’에 붙은 ‘-지’ 접미사는 통시적으로 보아 한자어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마치 손(孫)에 ‘-자(子)’가 붙은 것처럼 ‘심(心)-에 ‘子’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씹-’은 ‘쓰 + ㅁ이 되어 파생 이름씨가 되어서 다시 접미사 ‘子’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子’가 방언에서 ‘-지’로 발음되는 것인데, 표준어에서도 ‘심지, 씹지, 막지’ 따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뿌리와 접사가 통합이 될때 음운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이음만 생기는 파생어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런 합을 만들었다.

‘엿+덕’에서도 접미사 -덕에 어느 정도의 자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언에서 ‘술+덕, 화+덕’에서 ‘-덕’이 쓰이는데 술을 앓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키며, ‘덕을 쌓다’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덕’은 사라졌고, ‘엿+덕’에서는 ‘엿’의 뜻으로만 쓰여져서 덕을 접미사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 접미사 가운데에서는 통시적으로는 뿌리와 접미사로 나뉘지만 공시적으로는 단일어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다. ‘③ 봉-데기 ⑩ 텅-에’에서 뿌리가 자립성을 잃고 불구적으로 쓰인다고 본다. 어원적(etymology)으로는 자립적인데, 공시적으로는 자립성을 거의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나, 접미사가 뚜렷하므로 이렇게 처리하여 두었다.

(3) ‘ㅎ 댕나기<sup>14)</sup>

- ① - 차락 : 비- (빗자루)
- ② - 착 : 널- (널짝), 신-(신짝), 차롱-(그릇 이름)
- ③ - 테기 : 주럭-(형곶, 형곶조각) 가맹이-(가마니)
- ④ - 통이 : 모(隅)- (모통이)

여기에 쓰인 뿌리는 접미사와 통합이 되면서 -ㅎ-이 댕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문헌어에서 ‘모괘 모히’는 ‘모ㅎ’에 토가 붙어 ‘괘, 히’가 된 것이라 하지만 ①~③에서는 그런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표준어 ‘겉-자락 옷-자락’ 따위에 대응되는 것이 ‘비-차락’의 ‘-차락’이 되고, ‘괘-짝, 돈-짝’에 대응되는 것이 ‘널-착’ 따위여서 ㅎ이 댕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접미사 중에서 ‘-착(짝)’은 표준어로는 접미사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방언에서는 어느 정도 자립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착글래기’, 착이 맞지 않다’일 때인데, 그러나 ‘널-착 차롱-착’ 따위에서는 그 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대표형태의 설정에서는 ‘-ㅎ-’을 따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앞의 예로 보아 둔다.

③의 주럭- 가맹이-에서 접미사 ‘-테기’는 ‘비속’함을 나타내나 나머지는 보

14) 최규일(1989; 42)에서도 수+ㅎ+개(수캐) 수+ㅎ+닭(수닭) 수+ㅎ+범(수범) 따위를 공시적인 입장에서 보고있다.

통의 말로 쓰인다.

(4) ‘낮춤’의 접미사

- ① - 다가리 : 모양-, 땡시-, 쫘-,
- ② - 닥 : 복-(입성)
- ③ - 아리 : 상-(모양, 모습)

②에서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들은 접미사와 통합되므로서 ‘낮춤’의 바탕을 지니게 되었다. 말할이(speaker)가 이런 말을 썼을 때는 감정적으로 ‘못마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들음이’(hearer)도 상대적으로 ‘낮춤’의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다가리/ -대가리’는 방언에서는 ‘머리(頭)’의 낮춤말로 쓰여져서 자립성이 인정되며, -상아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되기에 접미사로 처리하여 두었다.

- ㄱ. 대가리가 나쁘다/좋다.
- ㄴ. 모양대가리가 나쁘다/(?) 좋다.

에서 ㄱ은 ‘머리’를 나타내지만 ㄴ에서는 ‘모양’을 낮춰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상아리도

- ㄱ. 상아리 조광 볼만 하다.
- ㄴ. 모양상아리 조광 볼만 하다.

에서 ㄱ이나 ㄴ에 공통적으로 ‘모양’의 뜻이 들어 있어서 같은 뜻이 글월이 되므로 ‘-상아리’를 ‘모양 상아리’의 준말로 보고 ‘-아리’를 접미사로 보았다.

통어론적인 입장에서 [대치성]은 뿌리로 쓰일 때나 접미사와 통합이 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2) 통어적으로 [+대치성]이나 뜻은 다른 파생어

- ① - 땡이 : 돌-
- ② - 세기 : 박-, 돌-
- ③ - 왓세기 : 되-
- ④ - 아지 : 막-

여기에 쓰인 접미사는 지소 또는 축소의 뜻을 지닌 것들이다. 그런데, 파생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③의 ‘되악세기’에서는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2종의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세기’에서 ‘악세기’로 변천해서 접미사로 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적으로는 표준어에서도 ‘-바가지’가 접미사로 처리가 되어 있는 점에서도 ‘-악세기’는 접미사로 처리가 될 수 있다.

②의 ‘박-세기’에서는 변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박-이 뿌리가 되고 ‘-세기’가 접미사가 된다. 표준어에서도 ‘박+아지로 나뉘어서 뿌리과 접사로 처리가 된다.

①~④의 접미사들은 모두 지소접미사이지만 통어적으로는 모두 [+대치성]을 지니지만 의미적으로는 ④를 제외하고는 대치가 불가능하다.

토박이(native speaker)들의 의식으로는 분명히 뜻으로 다름을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돌’과 ‘돌-세기, -맹이’에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드러나서 풀이말이 다르게 통합이 되거나, ‘되’와 ‘되악세기’에서 같은 도구이나 곡물을 된다는 점은 같지만 용도가 다르고, ‘박’과 ‘박세기’가 또한 다르다.

ㄱ. 그 박세긴 너미 크다.

ㄴ. 그 박은 너미 크다.

에서 ㄱ은 도구로 받아들여지지만, ㄴ에서는 도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ㄱ. 그 물박세기 초자 오라.

ㄴ. 그 물박 초자 오라.

일 때는 ㄱ, ㄴ이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로 의식이 되고, 통어적으로도 대치가 이뤄진다. 그렇다고 하여 ‘박세기와 ‘박’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겠다.

ㄱ. 되악세기 초자 오라.

ㄴ. 되를 초자 오라.

에서 ㄱ, ㄴ이 곡물을 되는 도구임에는 같지만 그 크기에서나, 용도에서 토박이



들에게는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통어적으로는 대치가 된다고 하겠지만 뜻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들은 동심구조적(endocentric)이며, 뿌리와 접사의 관계는 ④의 ‘막-아지’를 제외하고 외연과 내포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④의 ‘막-아지’에서는 ‘막-’이 쓰였을 때나 ‘-아지’가 통합이 되더라도 별 차이가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통어적인 대치성도 의식이 되지만 지소접미사 ‘-아지’가 쓰였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두었다.

나. 뿌리+접미사로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파생어

1) 통어적으로 [-대치성]인 접미사.

· (1) 고유어 뿌리

- ① - 녕 : 겁- / 쥌- (전복 껍질)
- ② - 영 : 쥌- (전복 껍질)
- ③ - 데기 : 쥌- (접떼기)
- ④ - 죽 : 겁- / 쥌- , 가래-
- ⑤ - 불 : 덤-

(2) 한자어 뿌리

- ① - 멜 : 작-(자갈)
- ② - 알 : 작(자갈)
- ③ - 지 : 작-(자갈)
- ④ - 시리 : 망-(網)
- ⑤ - 재 : 선-(願)(부채)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통시적으로는 뿌리만으로도 충분히 사물의 명칭으로 쓰였으나 공시적(synchronistic)으로는 거의 불구뿌리에 접근해 있는 것들이어서 접미사가 없이는 파생어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덤-불, 망-시리’에서 뿌리 ‘덤-, 망-’만이 고유어나 한자어에서 왔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의 뜻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겁- / 쥌-’은 많은 파생어를 내고 있는데 ‘쥌-영, 겁-녕’은 ‘전복껍

질'을, '겁-데기, 겁죽'은 '깎질'의 뜻으로 쓰여지는데, 뿌리로 쓰인 '겁-/꺄-'은 모두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통시적으로 '거피, 거풀' 따위가 '범화경, 동문유해'에도 쓰여지고 있어서 '겁-/꺄-'을 이름씨로 보고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본다. 한자어에서 온 '작-도' 김완진(1970)에서 '石(\*diäk/Ziäk/shi)에서 \*diäk이 된 것을 국어가 다시 받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름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는 뿌리만으로는 사물의 명칭으로는 쓰이지 않고 불구뿌리가 되고 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통어적 [대치성]은 통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으나 공시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덤+불, 땅+시리, 선+재'에서는 뿌리를 이름씨로 볼 수 있어서, [-문법성]이 드러나고, [+어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대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밖의 뿌리는 '겁-/꺄-, 작-'은 씨를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구뿌리가 되어서 어휘성, 문법성, 대치성마저도 불분명한 상태가 되고, 오직 접미사가 중심이 되어서 사물을 파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겁-/꺄-'은 [상-깎](항나무 깎질)으로 방언에서는 쓰이고 있어서 공시적으로 자립성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도 표준어에서는 이미 사라져서 '자갈' 정도나 공시적으로 쓰여 '작-'(小)에 '-알'이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방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방언에서는 '자갈, 자갈밭'이 쓰였을 때 개신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작지, 작지원, 작멜' 따위로 쓰였을 때 '작-'을 '小'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런 점에서는 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원을 밝히는 것도 방언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④의 '땅-시리'에서 '-시리'를 접미사로 처리할 수가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 '시리'는 방언에서는 '시루'의 뜻으로 쓰여지는데 그 뜻이라면 합성어가 될 것인데 '땅-시리'의 뜻의 특수성을 들어 접미사로 보아 두었다.

#### 다. 음식씨 뿌리에 붙은 접미사

##### 1) 통어적으로 [-대치성]의 접미사

(1) 형태음소적 변동이 일어나는 접미사.

- ① - 거리 : 먹-(먹거리)
- ② - 개 : 집-(집개), 들-/덥-/ (뚜정)
- ③ - 계 : 도-(돌-, 도리깨)
- ④ - 다리 : 삭-(삭정이)
- ⑤ - 래 : 뿔-- (뿔래) 툯-(툯-, 타래)
- ⑥ - 레기 : 씨그-(씨정이), 몰르(몰르-, 형겅근)
- ⑦ - 리 : 찰-(차+르-, 자루)
- ⑧ - 방 : 질-(지+르, 땀방)
- ⑨ - 뎡이 : 부짓-(불+짓-, 부지깅이)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뿌리와 접사의 경계에서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다. ③의 ‘도-계’에서는 뿌리를 ‘돌-’로 보아 [돌계]에서 [도계]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⑥의 ‘툯-래’에서 뿌리 ‘툯-’은 ‘들-’과도 대응이 되지만 방언에서는 ‘툯-’도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투리룻ㅎ다’다 ‘비틀린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보면 ‘실타래’와 유연성(motivation)이 발견된다.

그리고 ⑨의 ‘부짓-뎡이’는 ‘불+짓-’의 합성어에서 변동이 일어나 ‘-르-, 이 떨어진 것이고 여기에 다시 접사가 붙은 형태로 보았다. 합성어로 ‘부짓-’으로는 쓰이지 않고 ‘불짓-,’으로만 쓰인다.

⑦~⑧의 ‘찰-리’ 따위에서는 ‘차+르’로 간접통합으로 보아 된다. ②의 ‘들-/덥+개’는 뿌리와 접미사로 나뉘었지만 방언에서는 [두계]나 [더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뿌리는 ‘두-’가 되어 불구뿌리가 되어버리고 접미사의 형태는 ‘-계’가 되어버리므로 통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위와같이 분석하여 된다. ‘들-/덥-’에서 수의적변동(optional change)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같은 뜻으로 ‘두+깅이’도 있다. 그리고 ⑥의 ‘씨그+레기’에서는 줄기가 ‘씨-’일 뿐인데 -으-를 조음소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접미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지는 의문이다. 여기에서는 ‘-레기’를 접미사로 보아 두었다. 그리고, ‘몰르레기’에서 뿌리를 ‘몰르-’로 보았다.<sup>15)</sup> 표준어에서 ‘르불규칙’에 해당하는 말들이 방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15) 김공철(1965: 32)에서도 방언에서의 형태가 재구조화한 꼴의 예를 들고 있다. 밀위-밀뿔, 불휘-불뿔, 일흠-일뿔

것으로 여겨진다. ‘물르다, 달르다’ 따위로 쓰여져서 ‘물르+래기’에서는 즐기에 바로 접미사가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쓰인 파생어들은 그 뿌리가 움적씨의 즐기로 되어 있어서 접미사와 통합의 결과 모두 이름씨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배관계의 접미사로 [+문법성]과 [-어휘성] 통어적으로는 [-대치성]을 지닌다.

간접통합이 된 것은<sup>16)</sup> ⑥, ⑦, ⑧이고 나머지는 직접 통합이 이뤄진 것들이다.

## (2) 변이음만 생기는 접미사

- ① - 게 : 배-, 놀-
- ② - 다리 : 씌-, (쉬+ㄴ 음식이 씌)
- ③ - 디 : 차- (자루)
- ④ - 먹 : 그실- (끄으름)
- ⑤ - 매 : 질(지+ㄹ, 길마)
- ⑥ - 미 : 꿩- (꿩미)
- ⑦ - 세 : 차- (신차세)
- ⑧ - 악 : 뭇- (땃-, 매듭, 마디)
- ⑨ - 암지 : 놀 - (따놀로 엮은 비막애)
- ⑩ - 영 : 그스르 (그슬-, 끄으름)
- ⑪ - 예 : 즐(즐르- 묶음), ㄱ르(궂- 땃돌), 당그르-, (당근-, 곡식용 고 무래)
- ⑫ - 예기 : 기드르- / 게드르- (기들-, 해산물), 끌르- (끌르-, 보따리), 도르- (돌-, 도르레, 바퀴), 따르(밀-, 미래기), 유르- (이울-, 시든 것), 푸기(붓- 부푸러미), 주르- (줍- 수제비), 착글르(착글르-, 짹짹), 몽그르(몽그리- 몽당이) 치지르(치지+ㄹ, 헝겊조각)
- ⑬ - 예이 : 그스르 (그슬-, 끄으름), 글ㄱ(글- 글개) 궂ㄱ(궂- 호미) 누

16) 고영근(1974; 38)에서 앓은-뱅이 뽕빵을 간접통합이라 했고, 이익섭(1975; 162~3)에서 ‘앓은-’이나 ‘뽕-’을 ‘어기(어근 및 어간)보다 큰 언어형식’이라 했으며 하치근(1987; 39)에서는 글궂접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뿌리의 요소로 녹아 붙은 꼴로 보고 직접통합으로 본다.

ㄴ- / 누르- (놀+ㄴ- / 놀+르), 누릉지) 두꺼(뚫+-, 두껍), 아스(앗-  
침전물 걸- (업저지의 끈)

- ⑭ - 영지 : 걸- (업저기 끈)
- ⑮ - 오 / -우 : ㄹ(굴-, 가루)
- ⑯ - 오기 : 도르(돌-, 도르레, 바퀴)
- ⑰ - 왜 : 다리- (다리미)
- ⑱ - 음 / -움 : 조브 (좁-, 젓가락) 구드(굴-, 먼지) 우ㄱ(옥-, 밥주걱)
- ⑲ - 옥 : 누르(놀-, 주북)
- ⑳ - ㅁ / -음 : 거르- (걸- 거름), 다- (담) ㅅ르(을-, 열매)
- ㉑ - 이 : 재브(재비뽑기)
- ㉒ - 테 : 산(사+ㄴ, 사다리, 들 것)
- ㉓ - 취 / -추 : 단- (담+ㄴ, 단추)<sup>17)</sup>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에서 ‘② 순-다리, ⑤ 질-매, ⑭ 눈- / 놀-영이, ⑳ 산-테, ㉓ 단-추, 따위가 간접통합이고, 나머지는 직접통합이다. 그리고, ⑪ ‘줄레’는 표준어에서의 기본형은 조르다(끈같은 것으로 조이다)인데, 방언에서는 앞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줄르다’를 기본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뿌리들은 ⑫ ‘끌르-착글르-, 도 마찬가지로이고, 변동의 규칙도 일부는 적용되어야 설명이 되는 것들도 여기에는 있다. 특히 뿌리에 받침이 있고, 접미사가 홀소리가 있어 통합이 될때에 소리가음규칙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 / 없애기, /ㄹ / 없애기<sup>18)</sup>

17) 김계곤(1969; 39), 고영근(1974; 120), 하치근(1987; 40)에서 접미사로, 최규일(1989)에서는 ‘단-추’는 올라있지 않다.

18) 허 응(1989; 281)에서는 /으/는 /의/ - 씨끝과 뒷가지 [-이] 앞에서 없어지며 줄기끝의 「르」의 대부분은 /ㄹ/ 소리가 겹쳐진다.

강창석(1982; 44)

$$\text{으} \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c} + \text{ cons} \\ - \text{ voc}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 \text{ cons} \\ + \text{ cont} \\ - \text{ tens} \end{array} \right]$$

허 응(1985; 28) 줄기의 끝소리 /ㄹ/는 /브, ㄴ, ㅅ, ㅈ/와 매김할 씨끝「-을」앞에서 줄어진다.

송철외(1977; 60) ㄹ 탈락규칙

$$\text{ㄹ} \rightarrow 0 / - + \left[ \begin{array}{c} \text{C} \\ - \text{ grave} \end{array} \right]$$

그런데 [-grave]인 자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tens]인 자음이면 그 앞에서는 절대로 탈락하지 않음 [-grave] ‘ㄴ, ㄷ, ㅅ, ㅈ’

따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여기에는 더러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⑭에서 ‘누녕이 누랭이’에서 뿌리와 접사의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준어에서는 뿌리가 된 움직임쓴 ‘늘-,으로 보고 접미사를 ‘-옹지’로 보아 ‘누룽지’가 파생되는데 방언에서는 ‘누녕이/누랭이’가 된다. 방언에서는 ‘늘다’로 실현되는 일은 없고 ‘놀다’로 굴곡이 되며 ‘르’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방언에서는 ‘늘-,이 아닌 [놀-]을 줄기로 보고 ‘누녕이’에서 ‘놀+ㄴ+앵이’로 간접통합으로 보고 ‘누랭이’에서는 ‘누르-,에서 르을 줄기로 보든, 아니면 씨끝으로 보든 관계가 없겠지만 ‘누녕이’의 형태의 통합을 고려하여 간접통합으로 보아야 좋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움직임 뿌리에 붙은 접미사들은 모두가 이름씨를 파생하고 [+어휘성]이 있고 통어적 [-대치성]이 있다. 그리고, [+문법성]이 있으며 지배 접사들이다.

그런데 ‘④ 그 실-떡, ㉓ 단-취/-추’에서 ‘떡-파-추’가 접미사로 처리가 되어야 할까는 의문이 있다. ‘그스럼(끄으럼)’이 겹어서 먹을 연상해서 ‘-떡’을 붙였을 수도 있고, 단추에서 ‘-추’는 ‘저울추, 선추’ 따위가 있고 ‘추를 달다’는 말이 있어서 자립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단추’의 경우 표준어에서는 ‘-추’가 접미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언에서도 접미사로 처리는 해 뒀다.

그리고 ‘그실-떡’에서는 ‘그을린 떡’의 뜻이 아니라 ‘끄으럼’을 파생하므로 접미사로 보아 뒀다.

#### 라. 끝없는 접미사(Zero suffix)

- ① 놀(놀다, 노적더미)
- ② 여물(여물다, 여물다)
- ③ 조지(조지다, 묶음)
- ④ 날(날다, 피륙의 날經)
- ⑤ 건지(건지다, 건데기)
- ⑥ 사리(사리다, 새끼 따위의 묶음)

- ⑦ 되(되다)
- ⑧ 띠(띠다)
- ④ 빗(빗다)
- ⑩ 신(신다)
- ⑪ 자(자이다) > 재다

위에 올린 파생어들은 길으로는 뿌리만 있고, 접미사는 드러나지 않는 0형태의 접미사를 지닌 것들이다.

이런 현상은 첨가어(agglutinative language)<sup>19)</sup>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굴절어(inflecting language)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첨가어에서 다루어지는 파생어와 접사의 처리는 씨끝 ‘-다’만 없어져 파생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뿌리에 붙은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sup>20)</sup> 그런데 주로 파생되는 씨는 이롭씨, 어찌씨에서 생긴다.

굴절어에서는 같은 형태로서 단수 복수를 나타낸다고 강약의 위치에 따라서 씨가 갈리어지는 것들을 일컫지만 우리말에서는 길이나, 높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방언에서는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sup>21)</sup> 오직 ‘붙은 가지’에 의한 어간형 파생어만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용어도 Bloomfield는 zero-alternant로, Carrell은 zero modification으로 보고 있으며, Aronoff는 zero morpheme의 첨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롭씨와 풀이씨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파생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같은 계열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풀이씨에서 이롭씨로 파생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이런 파생어들도 맺음접사를 지녔다고 볼 수 있고 [+문법성] [+어휘성]을 지닌 지배접사를 지녔으며 통어적으로는 [-대치성]의 접사라고 할 수 있겠다.

19) Bloomfield(1933 ; 216)에서 사용된 용어

20) 박지홍(1986 ; 29)에서는 ‘붙은 가지’로 허용(1966 ; 19)에서는 ‘무형의 접사’로 쓰여지는 것이다.

21) 현평효(1971 ; 97~106)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17호에서 길이나 높이, 세기에 의한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22) 송철의(1977 ; 10~11)에서는 용언에서 체언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방언에서는 어찌씨에도 이런 파생어가 더 있지만 다음으로 미룬다.

마. 불구 뿌리에 붙은 접미사.

(1)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일어나는 접미사.

- ① - 대기 : 작- (작대기)
- ② - 살 : 닥- (꺾대기)
- ③ - 석 : 덕- (작은 명석)
- ④ - 쉬 : 작- (작대기)
- ⑤ - 재기 : 옥- (되의 작은 것)
- ⑥ - 지 : 닥- (꺾대기)
- ⑦ - 물 : 닥- (꺾대기)

(2) 변이음만 일어나는 접미사

- ① - 개 : 다- (마개)
- ② - 텡이 : 병- (흙덩이)
- ③ - 동이 : 모- (실꾸러미)
- ④ - 배 : 돔- (도마)
- ⑤ - 석 : 명- (명석) 덕- (명석의 작은 것)
- ⑥ - 애기 : 스크-- (술-, 싸라기)
- ⑦ - 어리 : 텡-, (텡어리)
- ⑧ - 역 : 새(썰기)
- ⑨ - 에 : 병- (흙덩이)
- ⑩ - 애기 : 비즈(비지- 비지) 주스-(쫂-, 윗 덮게)
- ⑪ - 앵이 : 주스(쫂, 윗 덮게)
- ⑫ - 쟁이 : 공- (옷걸이 따위)
- ⑬ - 지리 : 웅- (웅술, 작은 쇠술).
- ⑭ - 재기 : 종- (종지)
- ⑮ - 탕이 : 멩- (망태), 뭉- (뭉치)

위에 올린 (1), (2)의 뿌리들은 공식적으로 볼 때 씨를 알 수 없는 불구 뿌리들



이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와 접미사로 분석을 하는데 어쩌면 접두사를 뿌리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것들도 있다. 여기에 올린 것에서 보면 ‘명-석, 덕-석, 옥-재기, 병-댕이, 웅-지리’ 따위들인데, ‘명-석 덕-석’의 경우 방식(方席)과 같은 짜임의 말일까 하는 의심이 가고, ‘병-댕이, 웅-지리’에서 같은 뜻으로 ‘병에’가 있으므로 ‘병-’을 뿌리로, ‘웅-지리’에서는 ‘웅술이’ 표준어에 있으므로 ‘웅-’을 뿌리로 보아 왔다. 또한 ‘옥-재기’에서는 도구의 뜻이 강하게 나타나 핵은 ‘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뿌리로 보았다.

이들 뿌리에 통합이 되는 접미사들의 기능별 유형으로 살펴 볼 때 통어적으로는 [-대치성]이 있고, [문법성]의 유무는 알 길이 없으나 [+어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불구 뿌리에 통합이 되는 접미사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4유형<sup>23)</sup>에서 제5유형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 가운데는 단일어(simple word)로 볼 수도 있는 것들도 더러 있는데<sup>24)</sup> 토박이의 언어의식으로서의 뿌리와 접사로 나눠놓는 것이 바람직하게 느껴져서 여기에 올려 왔다.

(2)의 ⑦을 ‘덩-어리’로 분리해 놓았는데 표준어에서는 단일어로 처리가 되었다.

방언에서 분리를 한 것은 ‘덩-어리 덩-이’가 있지만 표준어에서는 크고 작음의 뜻이 갈리지만 방언에서는 그런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등(신체)-어리의 접미사가 붙는 점에서 ‘덩어리’를 파생어로 보았다.

#### 바. 이름씨 뿌리에 붙은 접미사.

(1) 변동이 일어나는 접미사

- ① - 굶대기 : 숯(숯가루)
- ② - 겁 : 상(항쪼가리) 니-(미끼) 새-(떠췌 줄기)
- ③ - 계기 : 낭-(나무조각)
- ④ - 새기 : 독(달걀)

23) 하치근(1987: 27~28)에서 I~IV 유형으로 기능별 유형을 나눠놓고 있다.

24) 고영근(1974: 64) 어근이 불규칙할 경우는 접사가 아무리 규칙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어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했다.

- ⑤ - 지 : 가락-
- ⑥ - 고지 : 적-(적 꽃이)
- ⑦ - 귀 : 방엿-(방아 절굿공이)
- ⑧ - 데기 / -드기 : 두말-(두말들이) 외말-(한말들이)
- ⑨ - 받이 : 푹(턱받이)
- ⑩ - 직 : 옷-(옷끼)

(2) 변이음만 일어나는 접미사

- ① - 션 : 부-(불-, 화로의 한가지)
- ② - 앵기 : 줌-(주머니)
- ③ - 움지 : 복-(腹, 지갑)
- ④ - 이 : 짐작-(작은 되(升) 가래-)-(가락)
- ⑤ - 자 : 남-(나무 국자)
- ⑥ - 장 : 살-(살장)
- ⑦ - 죽 : 남-(젓개)
- ⑧ - 따리 : 재-(재떨이)
- ⑨ - 바리 : 출-(풀 牧草) 한-(牧草의 단위)
- ⑩ - 바지 : 외대-, 삼대-
- ⑪ - 뺑구리 : 썰-(실 감개)
- ⑫ - 지계 : 등-(적삼의 일종)
- ⑬ - 스랑 : 쇠-(쇠스랑)

(3) 거센소리의 접미사

- ① - 채기 : 살-(통로에 있는 문)
- ② - 치 : 말-(큰술) 자-(자투리) 줌-(주머니)
- ③ - 코지 : 낭-(나무 꼬챙이)
- ④ - 태 : 남-(농기구의 일종), 등-(언치)
- ⑤ - 천 : 솥(솥귀)
- ⑥ - 태기 : 다똥(땃되들이) 서도(석되들이 솥)

(1)에 올린 접미사들은 첫소리마디가 모두 되계(fortis)소리가 나는 것들이어서

기본형태를 ‘-곰대기, -겁’ 따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곰대기, -겁’으로 보아 ‘ㅅ’의 개입이나 형태음소적 변동으로 처리하였다.

(2)의 접미사들은 닿소리가 앞에 와 있더라도 제 소리값을 지니고 있으며, 홀소리인 접미사와 뿌리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소리 이음’이 일어나 CVCV에서 CV+CV로 되는 것들이다.

(3)은 거센소리를 첫소리자리에 지닌 접미사들인데, ①의 -채기, ③의 -코지 ⑥의 -테기 따위들은 변이형태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1)~(3)의 접사들은 그 뿌리가 모두 이름씨로 되어 있지만 가의 1)의 접미사들과는 달라서 [-대치성]이 통어적으로는 있는 반면에 [+어휘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 접미사들은 사물의 명칭이 입장에서 보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법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들 접미사들 중에서는 통시적으로는 실사이던 것이 더러 있다. 1)의 ②-겁 ⑥-고지 ⑨-받이 2)의 ⑦-죽 ⑧-따리 ⑨-바리 ⑩-바지 ⑫-지게 3)의 ③-코지, ⑤-천 따위들인데 이들을 의존성이나 특수성을 들어 접미사로 보아 둔다.

특히 ⑦남-죽(젓개)에서 [-죽]은 가래-죽(삼)이 있음으로 해서 실사임을 알 수 있지만 자립성은 없어 접미사로 보았으며, ⑨출-바리는 썸의 단위에 붙는 의존 명사이기도 하여 접미사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접미사로 처리하여 둔다.

⑫등-지게'에서도 짐을 지는 '지게'가 아니고 '옷의 일종'이기에 접미사로 보았다. ③의 낭-코지에서 '코지'에 자립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접미사로 보았으며, '재-따리'에서 '떨이'에서 모음이 교체되어 '떨이'와 형태가 다르고, 또 의존성이 인정된다.

사. 어찌씨 뿌리에 붙은 접미사

① - 이 : 뽕통-(총알)

② - 예기 : 는지르-(는질는질, 는지렁이)

이들은 상징어 뿌리에 붙어 있는 접미사들로서 방언의 단어 형성(word formation)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지만 사물접미사로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뽕뽕뽕’은 ‘재빠르고 가볍게 날아가면서 일어나는 소리’에서 접미사 ‘-이’가 붙어 되었고, ‘느질느질’은 ‘미끄러운 상태’에 ‘-에기’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졌다.

역시 이 접미사들은 [+문법성] [+어휘성] [-대치성]을 지니고 있는 맺음접사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146개의 접미사<sup>25)</sup>와 통합된 뿌리들 가운데 80% 이상이 하나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뿌리에 접미사가 통합이 되더라도 고유어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적합한 소리마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특히 가의 1), 2)에 쓰인 40개의 뿌리는 접미사 없이도 충분한 사물의 뜻을 나타내는데, 접미사가 붙은 것은, 소리마디가 너무 짧으면 언어경제성은 있으나 청각인상의 불투명으로 어휘의 안전도가 낮으므로, 안정성이 높은 소리마디를 이루기 위해 접미사와 통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 (2), (3)의 접미사들에서는 덧붙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4), (5)에서는 상황적 의미의 가의로서 ‘비속’이나 ‘지소’의 뜻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sup>27)</sup>

그런데 나의 뿌리들은 통시적으로는 자립성이 있던 것들이지만 공시적으로는 접미사가 없으면 어휘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어로서 뿌리와 접미사의 연결은 폐쇄적이나 접사의 특성에 따라 그 연결의 긴밀성에 정도차를 두고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sup>28)</sup> 내에 쓰인 접미사들은 제1유형에 드는 접미사로, 앞의 가에 쓰인 접미사는 제2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유형의 접사는 ‘작+지(자갈) 겹+데기’로 제2유형의 접사는 ‘메주+개미, 곳+갱이’ 따위로 나뉘볼 수 있다.

특히 제1유형의 접사는 단일어(simple word)적인 성격이 짙게 보인다.

그리고 다의 1)의 뿌리와 접미사의 통합관계는 뿌리가 움직씨이므로 접미사가

25) 사물 접미사의 수를 146개로 세기는 했지만 배열방법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 숫자는 많이 줄 것으로 안다.

26) 최규일(1989; 27) 안정성이 높은 것은 2·3음절어로 보고있다.

27) 홍사만(1985; 206) N류 파생접미사 중에는 여기에 상황적, 추상적 의미만을 가의하는 부류들도 있어서 가의성은 주로 대상에 대한 비속의 의미나 존대의 의미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

28) 하치근(1985; 223) 기어와 접사 사이의 연결은 폐쇄적이나 접사의 성격에 따라 그 연결의 긴밀성에 정도차를 두고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통합되어 이름씨를 파생하고 있으므로, 접사의 기능은 지배접사 또는 통어적 접사에 해당한다. 앞의 가, 나의 접사 이름씨 뿌리에 접사가 통합이 되어서 상황적 의미만 더하는 한정적 기능의 접사가 있고, 통어적으로 [-대치성]의 접사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문법적으로 지배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에서 뿌리와 접사의 통합에 대한 접미사에 대한 직능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다만 뿌리에 접미사가 붙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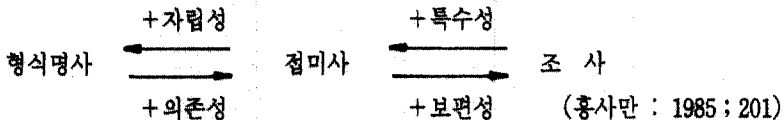
이러한 뿌리를 불구뿌리, 불규칙 어근, 또는 불구형태소(unique morpheme)이라고도 한다. 역시 불완전접사(inactive morpheme)가 있는데 극히 제한된 뿌리에 붙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바의 파생어들은 뿌리가 이름씨이고 접미사와 통합이 되더라도 이름씨이므로 지배관계는 이뤄지지 않고 어휘적이며, [-대치성]의 바탕을 지니고 있다.

사의 파생어에서는 뿌리와 통합되는 접미사는 씨를 바꾸므로 지배관계가 이뤄지며, [+어휘성]을 지니며 [-대치성]을 지닌다.

그런데 접미사의 설정이 어려움은 김계곤님(1968; 2)이나 하치근님(1988; 26)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영근님(1974; 69~79)의 지적에 따른 동요(oscillation)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물 접미사는 뜻바탕의 영역이 단순하여 ① 조각(토막), ② 도구(제구), ③ 물건(물건이름) 이름을 지시한다(하치근 1988; 45)는데 이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 1. 조각(토막)

- 개미(매주-) +갱이(끗-) -착(널-) -태기(주럭-) -맹이(돌-)
- 세기(박-) -멜(작-) -알(작) -지(작-) -다리(삭-) -래(툼-)

-에(줄르-) -ϕ(건지) -뎡이(병-) -동이(모-) -어리(덩-) -겹(상-)  
-계기(낭-)

## 2. 도구(제구)

-세(기뎡-) -차락(비-) -착(차롱-) -악세기(되-)  
-다리(포-) -배(돔-) -시리(망-) -재(선-) -계(좁-) -계(도-)  
-리(차+르-) -방(지+르-) -뎡이(부+짓-) -디(차-) -매(지+르-)  
-미(괘-) -세(차-) -암지(늘-) -에(당+근-) -앵이(굽-)  
-영지(걸-) -오기(돌-) -옴(좁) -태(사+ㄴ) -취/-추(달+ㄴ)  
-ϕ(되·빗·띠·자) -대기(작-) -석(덕-) -쉬(작-) -재기(옥-)  
-역(새-) -앵이(춧-) -쟁이(공-) -지리(웅-) -뎡이(망-)  
-고지(적-) -귀(방에+ㅅ) -드기/-데기(두+말-) -바디(북-)  
-섭(부-) -앵기(좁-) -옴지(복-) -이(짐작-) -자(남-)  
-장(살-) -죽(남-) -따리(재-) -뱅구리(쌀-) -스랑(쇠-)  
-치(말-) -태(남-) -태기(다+도+ㅅ)

## 3. 물건(물건명)

쟁이(가지+ㅅ-) -고지(못-) 글래기(코, 노+ㅅ-)  
-도리(굽-) -동이(굽-) -보름(백-) -살(정-) -상귀(섭, 잎-)  
-쟁이(입-) -생기(입-) -재기(굽-) -자(공-) -기(조개-)  
-데기(봉-) -덕(영-) -도리(태-) -머리(통-) -매기(모-)  
-생이(곰-) -습세/-십세(푸-) -에(팅-) 이(막대 0-)  
-지(썸-) -장(영-) -앵이(주시-) -통이(모-) -녕(끓-)  
-영(끓-) -데기(겹-) -죽(겹-) -불(덤-) -거리(떡-) -래(빨-)  
-으래기(씩-) -계(늘-) -다리(쉬+ㄴ-) -먹(그 실-) -악(못-)  
-영(그슬/실-) -앵이(앗-) -옥(눌-) -ㅁ(다-) -옴(열-)  
-이(쟁-) -살(닥-) -지(닥-) -물(닥-) -애기(술-) -굶애기(숫-)  
-새기(독-) -직(웃-) -바리(출-) -바지(외+대-)

-지계(등-) -채기(살-) -코지(낭-) -천(술-) -이(뽕뽕-)  
-닥(복-)

이상에서 의미별 유형을 살펴 보았는데 기능별 유형이나 그 밖의 것은 다음으로 미룬다.

## 요 약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쉽지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역시 방언의 접미사 목록도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뿌리와 접미사의 형태분석도 또한 그와 비슷함을 느낀다.

여기에 작성한 접미사의 형태들은 뿌리와 통합관계를 증시하다보니 겹쳐지는 일도 더러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

특히 방언의 접미사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처지에서 보면 통시적인 것도, 공시적인 것으로 처리된 것도 있는데 이런 점의 극복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계속해서 방언의 접미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영봉(1986) ; 제주도 방언의 어명연구 「논문집」 제23집 제주대학교  
 강창석(1982) ; 현대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50호 국어연구회  
 김계곤(1969) ;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논문집」 4 인천교대  
 고영근(1974) ;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 광문사.  
 김공철(1965) ; 제주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제28호  
 김석득(1971) ; 국어구조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완진(1970) ; 이른 시기에 있어서 한·중언어 접촉의 일반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6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김홍식(1979) ; 제주도 방언 “가쟁이”어고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

- (1985) ;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I) 「논문집」 제20집 제주대학교  
(1986) ; 제주도 지방의 지명어휘고(II) 「논문집」 제22집 제주대학교
- 박지홍(1986) ; 우리 현대 말본, 과학사.
- 송철의(1977) ;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제35호 국어연구회  
(1983) ;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제12호 국어학회
- 이승녕(1956) ;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익섭(1975) ;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호.
- 최규일(1989) ;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 하치근(1985) ; 조어론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부산한글」 4집 한글학회부산지회  
(1987) ; 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부산대학교 학위논문
- 한만수(1984) ; 영어구조론, 형설출판사
- 허 응(1966) ; 서기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제6집 서울대문리대.  
(1979) ; 우리옛말본-형태론-, 샘문화사  
(1985) ;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오늘·어제-, 샘문화사
- 현평효(1985) ; 제주동 방언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홍사만(1985) ; 국어어휘 의미연구, 학문사
- 한글학회(1986) ; 새한글 사전.
- M. Aronoff(1981 ;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L. Bauer(1983) ;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 Bloomfield(1979) ; Language(14판), George Allen and Unwin LTD.